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지난 주간 장신대 신대원 학생들의 교회 밖 현장실천이 있었습니다. 협력하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멧쟁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오후 3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사랑방 바이블 데이가 28일(주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가 26일(금) 오후 8시에 모입니다.
- 여름 공동체생활이 7월 30일(목)부터 8월 2일(일)까지 있습니다.
- 장미숙 권사 어깨 수술하셨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홍삼성 장로 · 임명숙 권사 · 임은숙 집사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형배 집사 · 오강자 권사 가정 (감사)
이종옥 집사 (엄마 기일)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3 - 25 호

2026년 6월 2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망설일 줄 아는 인간성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김애란 작가가 MBC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손석희씨가 던진 여러 질문들 중에 인상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AI와 인간의 차이를 묻는 질문이었고 김애란 작가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인간한테 있고, AI한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망설임'이었는데요...."

이 대답을 듣고 정말 대단한 통찰이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기억이 나고 생각을 깊이하게 되었습니다.

AI를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AI는 질문을 받으면 즉시 답을 내놓습니다. 단 몇초 안에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논리적인 해결책도 순식간에 제시합니다. 심지어 감정적인 위로까지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 쉽게 입을 떼지 못합니다.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혹시 선부른 위로가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잠시 침묵하고, 망설입니다.

김애란 작가는 바로 이 "망설임"이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고 AI와의 극명한 차이라고 말했습니다. AI가 망설이면 시스템 오류이지만, 사람의 망설임은 때로는 그 어떤 말 보다 큰 위로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즉시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유능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쉽게 SNS에 올라온 몇 줄의 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상대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기도 전에 해결책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가감 없이 말합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 타인과의 연결은 많아졌지만 진솔한 관계는 약해졌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는 차고 넘치지만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AI가 인간을 위협한다는 것은 AI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수행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간다는
선교와 섬김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은 원래 효율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관계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감하며 사랑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삶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그 사람 자체를 보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세리를 보실 때도, 병들어 버림받은 사람을 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극악한 죄인을 보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위로의 눈으로 침묵 속에서 바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깊은 위로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사랑 때문에 잠시 판단과 정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 할 것은 기계가 인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기계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람자체보다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고, 공감보다 정답을 우선하며, 관계보다 일의 성과를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모습은 가졌지만 인간성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신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누리는 더 깊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망설일 줄 알고, 침묵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AI 시대에도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켜 내는 인간성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
 <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486 317 / 623

기도 :

성경 : 역대상 29장

제목 :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1. 내용: 다윗이 기꺼이 성전건축 헌금을 하며 솔로몬을 즉위시키다 (What)

<문단구분>

1~9절 다윗과 지도자들의 건축 헌금

10~22절 다윗의 찬양과 기도

23~30절 솔로몬의 즉위와 다윗의 통치 요약

2. 의미: 사모함의 마음이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이유이다. (Why)

- 1) 하나님의 거절에도 낙심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였다.
- 2) 다윗은 자기 인식이 분명하였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 드렸다.
- 3) 정직한 마음이 다윗의 최대 장점이다. 하나님 앞에서 ‘처세’ 하지 않았다.

3. 적용: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하자. (How)

- 1)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합시다.
- 2) 하나님의 일은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 3) 하나님의 일은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이해하자.

성서일기

최근 무너진 교권과 학교 폭력, 촉법소년 문제를 다룬 드라마 <참교육>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선을 넘은 가해자들을 힘과 법으로 가차 없이 응징하며 시청자들에게 소위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악한 행동을 저지른 만큼 그대로 되돌려 받는 인과응보의 결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공의와 정의에 목말라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구약성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출 21:24)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피해를 본 만큼만 갚아주어 무자비한 과잉 보복을 막으려 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가 주는 짜릿함 뒤에는 씁쓸한 현실의 묵직한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법적인 처벌과 힘에 의한 징벌이 사람의 깨어진 내면과 깨어진 관계까지 바꿀 수 있는가?”하는 점입니다. 힘으로 억누른 통제는 일시적일 뿐, 사람의 근본적인 죄성과 미움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죄를 응징 하는 모습에 '참교육'이 무엇인지 삶과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죄인들을 힘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의 보복 논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공의의 칼을 내려놓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없는 복수의 죄사슬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방식처럼 똑같이 되갚아 주는 '사이다'를 좇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도 십자가의 용서라는 '미련해 보이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교육은 힘의 논리가 아닌 '오래 참음과 사랑' 이라고 성경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나 자신조차 배타성과 이기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다시 생각 하게 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신앙이 아닌, 손해 보고 낮아지는 십자가의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체들의 삶

비움사랑방 최창수 집사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시 편 60 : 1, 5-8, 11-12 인도자
66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에베소서 2 : 8 인도자
411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요한복음 20 : 19-23 설교자
623 미리내사랑방
“ 예수님의 소원 ” 임채정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설교자
505 다함께
인도자
288(3)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김예지 김이레 / 봉헌위원 : 박영선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평강의 하나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평화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저희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소원

두려움 속의 제자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유대인들의 시선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오신 주님. 두려움 속에 떨며 함께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하고 첫 인사말을 전하셨습니다. 너무나 상반되는 장면입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감정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대로, '용서와 화해'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지금의 저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최신혜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6월이 되어 신나는 여름 노래를 배웠습니다. 신나는 노래에 재밌는 율동이 꾸러기들을 자꾸 춤추게 합니다. 배우면서 율동하고 싶다고 별떡 별떡 일어나 다 같이 왔다 갔다 하며 율동을 합니다. 그중 수박파티와 시장잔치, 훌라리훌라리는 일주일 내내 부르고 있습니다. 꾸러기들의 노래사랑, 율동사랑은 여름 불별보다 뜨겁습니다.

6월의 체육은 달리기입니다. 우선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동체 받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힘들어했지만 언니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한 바퀴를 멋지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고깔을 찍고 오는 찍고 달리기, 고깔을 돌아오는 고깔돌기 달리기, 예쁜 미니 보자기로 꼬리를 만들어 하는 꼬리잡기, 바람개비가 멈추지 않게 계속 달리는 바람개비 달리기를 해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고, 힘들다고 하지만 신나서 깔깔깔 웃으면서 달립니다.

단오가 찾아왔습니다. 단오의 시작을 꾸러기는 익모초로 시작했습니다. 너무 써서 힘들어했지만 용기 내어 먹고, 달달한 요구르트를 먹어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창포로 머리도 감고, 그네도 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따둔 앵두와 오미자로 청을 만들어 앵두화채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여름이 무덥고, 힘들겠지만 꾸러기들은 아주 힘차게 잘 이겨낼 것 같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15일 월요일 아침 9시 (구)축석휴게소에 모인 어린이들의 표정이 유난히 들떠 있습니다. 여행마다 늘 즐거운 얼굴로 만나지만 에버랜드 여행은 더, 더, 더 그래요. 너무 들떠서 잠을 설쳤다고들 합니다.

에버랜드여행에서는 가능한 놀이기구 수준으로 조를 나누는데 올해 조 이름은 '비'입니다. 여우비, 이슬비, 가랑비, 장대비였어요. 특히 '장대비' 조는 특급 도우미이신 아버지 선생님 두 분이 맡으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단체여행이 많이 금지되었고, 대학교는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올해 에버랜드는 대기 줄이 꽤 짧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안 좋았던 점은 '무더위'였습니다. 32도를 오가는 더운 날씨였는데 그래도 어린이 친구들은 열심히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화요일에는 캐리비안베이에 갔다가 저녁 전에 에버랜드로 다시 가서 밤 9시 30분 넘어서 퇴장했습니다. 다 같이 모이기로 약속한 9시 30분이 다가올수록 발바닥에 불이 날 것 같은데도 '여기까지!', '이것만 더!'를 외치며 아쉬워합니다. 특히 6학년 친구들은 이번이 어린이에서의 마지막 1박 2일 에버랜드 여행이라는 게 몹시 아쉽고, 다른 학년들은 내년에 어떻게 할지, 뭘 도전할지 벌써 계획을 세웁니다.

"너희는 에버랜드가 더 좋아, 캐리비안베이가 더 좋아?"라는 질문은 마치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급의 곤란한 질문입니다. 두 곳 다! 함께! 가서 좋았습니다.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기말이 성큼 다가오는 것이 체감되면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아진 주간이었습니다. 최고온도 33도로 한층 더워진 날씨 속에서도 종강발표회를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본 작성, 악기 연주, 영상 제작, 그림 전시 등 이번 학기의 산물을 열심히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귀국한 4학년도 차례대로 등교하면서 그런 흐름에 합류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화요일에 있던 늘푸른예술제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멋쟁이도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찾아가 대회를 관람하고, 참여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멋쟁이들은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개럿 선생님과 신대원에서 학교 밖 현장실천으로 손님 6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수업이나 학년별여행 보고회, 월드컵 응원관람까지 함께 하면서 좋은 경험을 갖고 가셨기를 소망합니다. 준공된 새로운 공간들을 정리하며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방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향유하는 장으로서 쓰일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1학기 마무리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와서 보라, 환대의 영성으로

지난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신대원 2학년 과정에 있는 학생들 여섯 분이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교회 밖 현장실천' 과정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 현장실천'은 장신대 신대원의 정규 과정입니다. 현장교육 강화의 목적으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 방문하여 강의실 안의 신학 공부를 넘어 현장의 다양성을 깊이 배우도록 돕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방공동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난 2010년부터 장신대에서 꾸준히 학생들을 보내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통은 10여명의 학생들이 방문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목회자 후보생들입니다. 현재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안수를 받아 목회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기에, 저희는 귀한 손님으로 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손님들이 가능한 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도록 배려하며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일정 중에는 정태일 목사님께서 공동체 신학과 공동체 목회를 주제로 깊이 있는 강의를 해 주셨고, 또한 공동생활을 하는 디아코니아와 그루터기 방모임에 각각 참여하여, 실제 공동체 삶에 대한 궁금증과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나누었습니다.

베다니 하늘 주방과 공동체 사무실에서는 정성껏 차와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사랑방의 풍성한 식탁을 칭찬하며 부러워하시곤 하십니다. 영농 팀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노작 활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아침 기도회를 마친 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공동체 밭에 나가서 함께 땀 흘려 노동한 뒤에 누린 휴식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돌아가는 손님들의 얼굴은 너무나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막연하고 이상적으로만 느껴졌던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고, 얼마간의 실마리를 찾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가 대부분 초면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저 또한 손님들을 위해 기꺼이 숙소를 제공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서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시는 손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라고 하셨던 로마서 말씀의 의미를 몸소 느끼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정재훈 목사

찬 송 : 586장, 580장

성 경 : 역대상 29장 1~9절

말 씀 : 먼저 모범을 보이라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중동전쟁 종식을 위한 기도>

미국과 이란은 6월 14일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고, 19일 제네바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합의에 대한 서로의 해석이 달라서 차후의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선 전쟁의 포화를 멈출 수 있도록 첫 단계 협상부터 양측이 약속대로 이행이 되고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아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아바 공동체가 화천에서 40년째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이 그곳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최근 소명을 재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길,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한 기도>

- * 장미숙 권사 어깨 수술을 위해
- * 공동체 안에 건강 회복 중인 지체들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때 이른 폭염으로 인해 바깥작업이 힘겹고 벅차지만 농사일과 제초작업 및 주변 정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생 6분이 교회 밖 현장실천으로 2박 3일 동안 방문하였습니다.

공동생활 식구들 가정에 머물며 아침 노작도 함께 참여하고 강의와 여러 만남들을 통해 사랑방 공동체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